

금융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출

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실 500-5367

◇ 주요 내용

- 정부는 외환부족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외자조달방안을 검토·추진중인바
 - IMF 자금지원 Program에 따라 주요 선진국이 필요시 지원하기로 한 자금(제2선자금)을 조기에 도입하고
 -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채무를 중장기 외화채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.
- 현재,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므로
 - 금번 임시국회에 국가의 지급보증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.

1. IMF Program에 의한 선진국 제2선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

가. 배경

- 당초, IMF 자금지원 합의시 IMF, World Bank,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우선적으로 외화자금을 지원하되(제1선 자금)
 - 주요 선진국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추이를 보아 추후 필요시 지원(제2선자금)하기로 하였음.
 - * 제1선자금 : 350억불(IMF 210억불, W.B 100억불, ADB 40억불)
 - * 제2선자금 : 233.5억불(일본 100, 미국 50, 독.영.불.이 50, 벨기에.네델란드.스위스.스웨덴 12.5, 호주 10, 캐나다 10, 뉴질랜드 1)
- 정부는 선진국 지원자금의 일부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협의중인바, 선진국들은
 - 중앙은행간의 SWAP 방식으로 차입토록 하되
 - 동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해 줄 것을 제의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금번 국회에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임.

나. 국회보증동의 요청내용

- 채권자 : 외국의 중앙은행
- 채무자 : 한국은행(중앙은행간 SWAP 방식)
- 보증한도 : 80억불(제2선 지원자금 233.5억불의 1/3 수준)
- 보증기간 : 3년 이내
- 보증대상 : '98년도에 차입하는 외화채무

* 정부의 지급보증 사례

- 멕시코의 경우, 정부의 지급보증 대신 멕시코 국영석유회사(PEMEX)의 석유수출대금을 미국의 연방은행 구좌로 송금하여 현금담보를 제공

2. 외국환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

가. 배경

- 지난 '97년 제186회 임시국회에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음.
 - 채무자 : 국내은행(한국은행 제외)
 - 보증액 : 2백억불 이내 차입금(잔액기준) 및 그 이자
 - 대상채무 : '97-'98년중 발생하는 3년 이내 대외외화채무
- 그동안 정부는 각 금융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만기 연장하는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오고 있는바
 - 대부분의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채무의 만기 연장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보증토록 요구해 오고 있음.
- * '98년중 만기도래하는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액이 250억불을 초과
- 이에 따라,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의 단기채무를 중장기 채무로 연장하는 방안 등 우리 경제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부보증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바
 - 대외채무 만기연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 대외채무 보증한도의 확대 동의 요청을 하게 된 것임.

나. 국회 보증동의 요청내용

- 채권자 : 외국 금융기관(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)
- 채무자 : 외국환은행

- o 대상채무 : '98년에 발생하는 5년 이내 외화채무
- o 보증액 : 70억불(이자 별도)
 - * 2백억불에 추가하여 70억불 지급보증 요청한 근거
 - 보증수요(A) : 260-270억불
 - . '98년중 만기도래 금융기관(해외지점 포함) 단기차입(기간물) : 250억불
 - . GSM 자금 지급보증 : 10-20억불
 - * GSM 자금 : 미국의 상품신용공사가 자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3년 이하 무역신용
 - 기 정부보증 동의액(B) : 200억불
 - 추가 보증수요(A-B) : 60-70억불